

2015년 4월 20일 새벽말씀(편집본) /2005.10.24

네 오늘은 월요일 새벽입니다.

사람들이 어떤 일에 있어서 잘 하려면 잘 알아야 되고, 그리고 실력이 있어야 할 수 있습니다.

“아는 것과 그런 힘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 절대적인 것은 그런 정신이 있어야 된다.”

어떤 일에 있어서 그것을 할 수 있는 <정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잘 가르쳐 주고, 그래서 그러한 실력을 모두 닦도록 하라고 가르쳐 주고, 그래서 정신으로 이렇게 저렇게 하여 불길을 일으키고 혁명을 일으키며 사는 것이라고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잘하고 싶은데 잘 못 된다는 것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잘하고 싶은데 안 된다.”고 흔히들 말합니다. 그것은 실력이 약해서 못하는 것입니다.

또 잘하고 싶어도 안 되는 것은 왜 그런가하니, 정신이 필요합니다.

하늘 앞이나 세상의 어떤 일에 있어서 자기가 할 일에 대해서는 자기가 스스로 훈련하고, 스스로 정신 차리고, 스스로 뛰고 달려야지 옆의 사람이 해주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청중 따라 같이 하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가령 학교에서 공부를 할 때 어느 과목에서 떨어지면 자기가 밤잠을 못 자고 새벽잠을 못 잘지라도 공부를 더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따라 가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그러한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목적을 놓고 ‘에이, 나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꼭 해 보겠다.’는 결심을 하고, 자기 자신을 자기가 일으키면서 열심을 내고 하는 것입니다.

열심을 내서 하려고 해도 잘 안 되는 것은 옆의 사람에게 해 달라고 부탁을 하든지, 그렇게 해서 하는 것입니다. 마음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니까.

우리가 좋은 것은 하나님이 있으니까 기도하는 것입니다. 해 달라고.
“이렇게 하려고 하니 해 주십시오.” 그러면 거의 다 해 줍니다. 거의 90%는
협조하시며 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또 새벽마다 말씀을 해주지 않습니까? 말씀을 매일 해 주는
것입니다. 매일 해 주니까 너무 좋지 않습니까?

이제 새벽예배 드리는 것이 생활이 되었지요? 이제 어려운 것이 없지요? 아
침에 안 일어나거나, 한번 새벽에 안 일어나 보십시오. ‘에이, 한번 늦잠을
자고, 실컷 잠이나 잘까?’ 한번 해 봐요. 이제는 안 됩니다.
이제는 잠자고 편히 쉬고 싶어도 하기가 싫을 것입니다. 처음에 새벽예배 드
리고, 아침말씀을 듣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생활이 되어서 나나 여러분들이나 모두 새벽에 자꾸 일어나
고 싶잖아요. 안 일어나면 못 견디잖아요. 특별히 철야했을 때는 모르지만.

새벽뿐만 아니라 새벽에 일찍 일어난 그 정신을 가지고 하루 종일 빨리 시
간도 쓰고, 움직이는 정신이 살아있으니까 엄청난 시간이 좌우됩니다. 그러
면 “인생을 반이나 더 살았다. 배나 더 살았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인생을 사는데 여러 가지 구상, 안무가 필요합니다. 잘못 살면 70년, 80년 살
아도 그냥 하는 것 없이 끝납니다. 그러나 잘 생각하면서, 그리고 지혜롭게
살면 인생 70년 80년 살았어도 엄청나게 사는 것입니다.

인생의 하루도 생각하면 짧은 시간입니다. 그러나 프로그램을 잔뜩 해 놓고
서 하루 종일 살면 지칩니다. ‘아이고, 더 이상 못하겠다.’할 정도입니다.
그러니 안무를 잘 짜고, 프로그램을 잘 짜야 됩니다. 시간마다 다르게 짜기
도 하고, 알차게 짜서 생활하면 얼마나 많은 시간인지 모릅니다.
그렇게 되면 닥새 동안 해도 못 할 것도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한
번 해 봐요. 멋있는 안무를 짜고 멋있게 해 봐요. 그러면 엄청난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오래만 살려고 하지 말고, 이 젊었을 때의 시간을 잘 짜서 살면 엄청나게 쓰

는 것입니다.

선생도 해 보지만, 하루를 살아도 3일 사는 것보다 더 많이 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 같은 입장은 인생 100년 살아도 1000년 동안 그냥 사는 것 보다 더 많이 해 놓습니다. 10배를 더 합니다. 여러분도 어느 때는 하루 종일 멋있게 이런 일, 저런 일을 해 놓고 보면 열흘해도 못 다할 일을 합니다. 힘이 나서 확확 밀어붙일 때는 엄청난 일이 해집니다.

새벽에 운동하고, 또 산에 가고, 또 행사하고, 또 전도하러 나가고 가르치고, 그리고 모임에 갔다 오고, 그리고 기도하고, 성경보고, 말씀 듣고 하다보면 엄청난 일이 해집니다. 그러나 그럭저럭 하다보면 한 건도 제대로 못하고 끝 납니다.

선생님 따라다니면 너무 많은 일을 합니다. 시간이 아깝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과 같이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재미있게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의해 이끌려 움직이는 것입니다. 엄청난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프로그램이 별것도 없고 구상도 별것이 없지만 하나님의 삶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구상도 별것이 없고 그리고 생활이 별 것도 없지만, 선생님과 같이 생활하면 엄청나게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한 것은 우리들 생활과 이치, 삶과 지혜, 지식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또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성서의 말씀을 아무리 듣고, 무엇을 해도 사람이 된 다음에 들어야 됩니다. 사람이 안 되고 들으면 안 됩니다. 동물이 되어서 들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사람같이 못 사니까 사람보고 동물이라고 그랬습니다. 짐승 이라고 그랬습니다. “에이, 짐승 같은 사람이다.”했습니다.

그래서 늘 꿈으로 짐승을 보여줍니다. 짐승인데 사람인 것이 꿈에 많이 보임

니다.

“그래서 사람이 되어야 된다. 참된 사람이.”

그냥 철도 모르는 사람이 사는 것과 철을 알고 인생을 알고 뜻을 깨닫고 사는 사람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늘 배우려고 해야 됩니다. 큰 사람에게 배워야 됩니다.

큰 사람이 되어서 커지면 그 사람을 쳐다보면 표가 확확 납니다. 쳐다보면 표가 납니다. 그래서 사람은 자꾸 배워야 됩니다. 지식과 지혜로 자꾸 배우고 배워야 되지, 안 배우면 못 합니다.

선생님이 생활 가운데 제자들과 같이 행동하고서 가르쳐 줍니다. “이렇게 하라. 이와 같이 이러하다. 이와 같이 이러하다. 이와 같이 이러하니라.” 늘 가르쳐 줍니다.

그것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그랬습니다. “이와 같이 이러하니라. 이와 같이 이러하니라. 이와 같이 이러하니라.”

우리가 못하는 것은 늘 하나님께 기도를 해 놓아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알았다.”하십니다.

여러분들이 가만히 놔두어도 알아서 해 주겠다고 하지만, 나에게 이야기를 해 놓아야 됩니다. 이야기를 해 놓은 다음에는 “알았다.”합니다.

늘 하나님께 여러분이 할 것을, 주께 알리고 하나님께 알려라.”

지금 말씀하는 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본인들이 사람이 된 후에 말씀을 듣는 것과 그냥 듣는 것과는 다릅니다.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는 무엇이 무엇인지 몰랐고, 말씀도 그랬습니다. 그 때도 항상 귀한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리기 때문에 못 알아들었던 것입니다. 어려서 못 알아들은 것도 있지만, 그만한 나이에 그만한 정신을 안 차렸기 때문에 모른 것입니다.

그래서 표가 확확 납니다. 어렸을 때도 정신 차리고 열심히 한 사람들은 100리, 200리, 500리 앞에 가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시간을 주었어도 어느 방향을 향해서 걸어 가야할 필요성을 못 느낀 사람은 1시간을 갔어도 반도 못 가있고, 3분의 1도 못 가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그 필요성을 느껴

서 1시간 가지고 목적지에 다 가있습니다.

그와 같이 필요성을 깨닫고 가치를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신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금주의 말씀같이 ‘정신’입니다. “얼마나 이에 대한 정신을 가졌느냐, 얼마나 이에 대한 사상과 이념을 가졌느냐에 따라 좌우된다.”

지금 선생님이 말씀하는 내용 속에는 철학, 유명한 강의가 다 들어있습니다. 여러분정도 되면 이 말씀을 다 받을만합니다. 들을만한 위치에 있습니다. 들을만한 성장기에 있습니다. 10대 후반기, 20대 초반기, 20대 후반기, 30대 초반기, 40대, 50대이니까 충분히 다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말씀을 가볍게 들으면 그 말이 그 말 같습니다.

선생님의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단상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통해서 닦아지고 깎아지는 것입니다. 선생님은 그렇게 닦고 깎기 위해서 밥도 안 먹고, 산에 가서 기도하고, 이 대둔산 바위 절벽에 가서 기도하고.

여러분들도 기도해 보았지요? 하루 저녁만 교회에서 기도하든지, 들에서 기도하든지, 굴속에서 기도하든지, 대둔산에서 기도하든지 기도해 보았지요? 하루 저녁만 해도 무엇인가 다르잖아요.

‘내가 왜 이렇게 산에서 기도를 하나? 다른 사람들은 밤에 자는데 나는 이렇게 기도할까?’

기도할 때에 여러분들은 무엇인가 깨달아질 것입니다. 사람이 정신 차리기에 달렸습니다.

얼마나 정신을 쏟느냐에 따라서 확확 인생이 달라집니다. 물론 가르치는 것도 자료가 있어야 되고, 가르치는 사람이 잘 가르쳐야 되지만 배우는 사람이 어떤 정신을 가지고 배우느냐에 따라서 좌우됩니다.

금주의 말씀은 “사도들의 정신. 제자의 정신.”입니다.

“메시아 앞의 제자들의 정신은 어떠해야 될 것인가? 메시아 정신은 어떤 정

신을 갖고 살 것인가?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는 정신이니까.”

그리고 바로 그 정신을 갖고 제자들과 이 세상에서 따르는 사람들과 그 정신이 통합니다. 그러니까 그 정신이 굉장히 차원이 높습니다.

어느 때는 선생님이 많은 말씀을 하다가 그냥 보통으로 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깊은 이야기를 해 보았자 배우려고 안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어려운 일을 당하면 그 때서야 울고 짜고 몸부림치고 박박 깎입니다. 그러면 자기 신세 자기가 해결해야 됩니다.

선생은 어디에 있나 없어지고, 도울 자도 없어지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잠언에 있는 말씀에 그랬습니다. “선생의 말을 듣지 않다가 사망으로 기울어져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간다.” 그랬습니다.

모두 이렇게 교육들을 가르치는데, 우리는 성서의 말씀을 통해서 제대로 가르치고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전문가가 되려면 엄청나게 많이 배워야 됩니다. 알아야 될 것이 아주 엄두를 못 낼 정도로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섭리를 따라오고, 구원을 받고, 시대 하나님의 혜택을 받고 한 만큼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같이 축구를 하면 11명이 전부 다 축구에 대한 기본을 알고, 누가 볼을 잡으면 “채는 길게 안 달고 간다. 볼 잡고서 바로 패스를 한다. 채에 대한 것을 알아라. 저 애는 볼 잡으면 죽자 살자 끝까지 끌고 간다. 상대에 부딪힐 때까지 끌고 가서 기어코 골을 넣으려고 한다. 골 게이트도 아닌데 그런 성질이 있으니까 네가 받쳐주도록 하라. 채가 볼 잡으면 무조건 같이 들어가라. 채는 볼 잡으면 뒤로 패스를 꼭 한다. 백 패스를 하니까 꼭 뒤에서 받칠 사람이 따라가야 된다.” 이렇게 코치가 가르쳐 줍니다. 그렇듯이 볼을 차는 한 팀은 누구든지 기본적인 것만큼은 배워야 됩니다. 섭리를 따라가는 우리들도 마치 한 팀과 같습니다. 축구 멤버 한 팀과 같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기본적인 것은 배우고 살아야 됩니다. 생활의 기본은 배워야 됩니다. 한 팀이 되어서 섭리 역사를 펴나가기 때문입니다.

운동할 때도 귀찮게 생각할 것이 없습니다. 운동할 때 재미있게 하십시오.

그리고 보람 있게 하십시오. 그렇듯이 여러분들도 그래야 됩니다.

흔히 보면 제자들이 “나는 너무 어렵게 사는 것이 싫다. 섭리 안에서 편안하게 살고 싶다. 그런 구원을 받고 싶다.”하는데 그런 구원은, 편안하고 가만히 있는 구원은 결국 가다보면 얼마 못 갑니다.

사도들의 정신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는 것입니다. 온전한 정신을 갖기 위해서. 인생의 온전한 정신을 갖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다 쉬기도 하고, 또 열심히 일을 하다 보면 쉬어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한계가 있어서.

선생님부터도 계속 일을 못 합니다. 하다가 쉬고. 이런 꽃 같은 것도 계속 똑같은 꽃을 보이면 ‘저 꽃이 무슨 꽃이기에 저렇게 계속 꽃아 놓지?’ 합니다. 그리고 꽃이 매일 한 번씩 바뀌면 ‘너무 아쉽다.’ 할 것이고, 이틀에 한 번 바뀌면 ‘너무 빠르다.’고 할 것이고, 한 3일에 한 번 바뀌면 좋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다 안 바뀌고 1주일 가고, 2주일가면 나중에는 시듭니다. 나중에는 별것도 없습니다.

요즘은 꽃이 열매로 바뀌었습니다. ‘저것이 진짜 만든 것인가?’ 할 것입니다. 이것은 진짜 귀한 것입니다. 작품입니다. 내가 사 온 것입니다.

이것은 일반 돌을 깎아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잎사귀도 돌이고, 이 열매도 돌입니다. 옥입니다. 진짜 옥인데, 옥을 깎아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여기에다 레이저로 쏘아서 물감을 들였습니다. 이것이 전부 궁금하지요?

이와 같이 자꾸 단상의 꽃도 바뀌고 그러합니다. 이것도 구상입니다. 그래서 멋있게 소개시킨 것입니다.

말씀도 늘 똑같은 말씀을 하면 여러분들이 새로운 맛이 없고 그렇지요?

오늘 “사도들의 정신”이라고 해서, 금주의 말씀은 무엇인가 좀 다른 말씀이 왔지요?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사도들에 대한 가르침이 필요하고, 사도들이 해야 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새로운 역사를 보면 모르는 사람은 바울 선생같이 반대했습니

다. 그러다가 나중에 전도하게 되면 와서 회심하게 되고, 열심히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열심히 하면 과거에 반대했던 사람이 열심히 한다고 그 사람을 또 반대하고, 옳은 것을 찾았다고 해도 그러느냐고 따라오지 않고 이해 못하는 사람은 또 반대합니다.

“너는 미친 짓이다. 언제는 우리와 같이 반대하더니 이제는 또 거기에 가서 찬양을 하고 있느냐?”

사람은 다 무지하니까 그것을 알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섭리사에서 보람 있는 것은 하나님이 이미 2000년 동안 기독교를 이끌고 오시다가 다시금 새로운 역사를 시작해서 그 역사를 지금 가고 있습니다. 성약역사가 지금 가고 있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선생이 이것을 깨닫고 발견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성약 역사가 시작되어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들의 정신. 인생 삶의 정신.”

우리들이 자꾸 정상적으로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늘 그렇게 해야 됩니다.

선생님도 하늘 앞에 일을 하지만 일을 하려면 끝이 없고, 한이 없이 일거리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어느 때는 하다가 ‘이렇게 하다보면 하나님이 오랫동안 살라고 축복해 주셨는데, 정말로 명대로 못 살겠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힘들지만 계속 한 것이 남아있고, 힘들어서 안 한 것은 그냥 안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동이 잘 안 걸리는 자동차도 있습니다. 혼자서는 시동이 안 걸립니다. 그 때는 시동 걸린 차에 매달아서 막 끌고 가면 시동이 딱 걸립니다. 그러면 자기가 차를 운전하고 갑니다. 그렇게 자기 차를 자기가 운전하고 가면 재미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남의 차를 타고 가는 것보다 자기가 차가 있어서 운전하고 싶고, 운전하고 갈 때 재미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돈이 없어서 남의 차를 타고 다닐 때가 있지요? 그러다가 운전
을 배웠습니다. 운전을 배우면 자꾸 차를 사고 싶습니다. 그러면 결국 돈을
모아서 차를 사더라고요.

이와 같이 여러분들 자신을 운전하고 가야 됩니다. 섭리사 사람들은 다 선생
님이 운전을 해서 끌고 가지만, 그렇게 이런 일 저런 일에 스스로 인생을 살
라는 것입니다.

늘 문단속도 잘하십시오. 여름철에 문 열어 왔다가는 강패들이 쳐들어오고,
불량배들이 쳐들어오고, 도둑놈들이 들어와서 도둑질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강
간도 하고 가고, 막 칼로 찌르고 가고 그랬습니다. 문단속을 안 했기 때문입
니다.

모두 하나가 있으나, 둘이 있으나 문단속을 꼭꼭 잘해야 됩니다. 신앙의 문
단속도 해서, 영적으로 근신해서 마귀 사탄들에게 문단속을 꼭 하라는 것입
니다.

그리고 육신의 문단속도 잘해야 됩니다. 가라지, 악한 자들, 마귀들로 문단속
을 꼭 해야 됩니다.

자, 오늘 아침에는 이런 말씀, 저런 말씀을 하면서 죽 말씀해 왔습니다.

인생사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정신 차리고, 근신하고 할
것은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항상 마음 근신하라.”

항상 근신해야 됩니다. 날아다니는 파리를 잡아도 파리 잡을 수 있는 정신이
있어야 잡히지, 아니면 안 잡힙니다. 못 잡습니다. ‘저 놈의 파리, 내가 기어
코 잡아 없애야지.’ 하고 쫓아다니면 눈에 뜨입니다. 그러나 뜯어먹든지 말든
지 봐두면 안 잡힙니다. 그런 사람은 그냥 손으로 털어서 떨구고 맙니다. 그
놈이 와서 또 붙고, 또 붙고 합니다. 나중에 신경질 나니까 ‘에이, 쌍놈의 파
리. 죽인다.’하고 쫓아가면 기어코 잡고 맙니다. 그러면 확 밟아 비튼다.

이와 같이 파리 잡는 것도 파리 잡는 정신이 필요하고, 노는 데도 정신, 일
하는 데도 정신입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그러면 기도하고 끝나겠습니다.

<기 도>

사랑하시는 하나님, 큰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사도들의 정신.”에 대해서 오늘 말씀해 주셨고, 깨우쳐 주셨습니다.

모든 해됨과 상함이 없게 하나님 동산의 역사가 날마다 진전되고, 날마다 수가 불어나고 부흥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내가 이들을 축복하니 모두 잘되고 형통되며, 병듦과 아픔과 고통의 세계에서 건져내며, 이상 되게 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시고, 순종하고 열심히 뛰는 자에게는 축복해 주시고, 영광과 존귀로 더해 주시옵소서. 내가 이들을 축복하니 그러함을 받을지이다. 삼위의 능력과 권능이 이들에게 함께하고 영원할지어다. 아멘.

안녕!